

미국, 에틸렌 마진 사상 최고수준

허리케인 이후 수급타이트 심화 ... 에틸렌 10월 계약가격 54.5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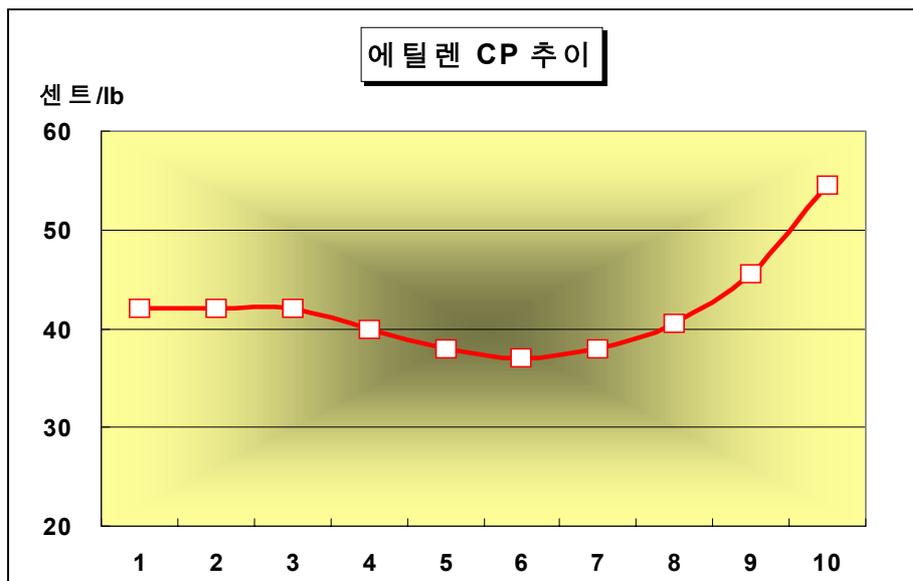
미국의 에틸렌(Ethylene) 수급타이트가 심화되는 가운데 에틸렌 마진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CMAI에 따르면, 에틸렌 수급타이트는 8월 Innovene의 텍사스 Chocolate Bayou 소재 에틸렌 19억파운드 컴플렉스 폭발사고로 촉발돼 허리케인 Katrina와 Rita 쇼크로 가중됐으며 10월 Formosa Plastics의 텍사스 Point Comfort 소재 No.2 에틸렌 18억파운드 컴플렉스의 화재로 절정을 달렸다.

Innovene의 에틸렌 컴플렉스는 9월 중순 재가동됐으나 허리케인 쇼크는 10월 중순까지 미국 에틸렌 생산능력의 21%인 168억파운드의 생산차질을 초래했고 Formosa의 정상가동이 지연되는 가운데 Dow Chemical의 루이지애나 Taft 소재 에틸렌 22억파운드 크래커가 11월 초 정기보수에 돌입해 수급타이트가 심화되고 있다.

Platts에 따르면, 9월 에틸렌 계약가격은 파운드당 45.5센트로 5센트 상승했고 10월 계약가격은 파운드당 54.5센트로 9센트 급등했다.

11월 계약가격에 대해서는 한 메이커가 파운드당 5센트, 다른 메이커가 6센트 인상을 고시했으며 다른 메이커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6센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60.5센트로 60센트를 돌파할 전망이다.



에틸렌 Spot 가격은 9월 인도분이 FD US Gulf 파운드당 59센트, 10월 인도분이 파운드당 69-70센트를 형성했고 10월21일 11월과 12월 인도분이 각각 71.8센트, 72센트를 형성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Merrill Lynch는 4/4분기 에틸렌 가격급등과 나프타(Naphtha) 및 에탄(Ethane) 등 원료가격 하락으로 에틸렌 메이커들의 마진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4분기 나프타 베이스 에틸렌 메이커들의 마진은 파운드당 22센트, 에탄 베이스 에틸렌 메이커들의 마진은 파운드당 14센트로 예상되며 에틸렌 부문의 총 마진은 파운드당 17센트로 3/4분기 9.2센트, 2/4분기 14센트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며 특히, 나프타 베이스 에틸렌의 마진은 1/4분기 파운드당 21센트, 피크였던 1995년 파운드당 19센트까지도 능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프로필렌(Propylene) 계약가격은 10월 파운드당 49.5-51.0센트로 전월대비 10센트 상승했다.

<화학저널 2005/11/14>